

올해 첫 폭염특보…주중 무더위 지속

광주·곡성·담양·구례·순천 '경보'

도서 제외 나머지 지역 주의보

곡성서 열사병 증상 환자 발생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광주·전남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주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지만, 습도의 영향으로 체감온도는 훨씬 무덥겠다.

2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도서(島嶼) 지역을 제외한 광주·전남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폭염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뉜다. 주의보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경보는 35도 이상이 이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될 때 발효된다.

주말 동안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지속 유입되면서 광주와 곡성·담양·구례·순천에 발효된 폭염특보는 이날 오전 10시에 경보로 격상됐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 폭염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무더위의 영향으로 지역에선 온열질환자도 발생했다.

전날 오전 11시51분께 곡성을 한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을 하던 A(80대)씨가 쓰러졌다며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 전 A씨는 열사병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곡성의 이날 최고기온은 37.3도를 기록했다.



더위에 물놀이가 즐거운 아이들

폭염특보가 내려지며 무더운 날씨를 보인 29일 오후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바닥분수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기상청은 당분간 광주·전남 지역의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을 웃돌며 매우 무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최고기온은 광주·담양·순천·구례·곡성으로 이송됐다. 이송 전 A씨는 열사병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곡성의 이날 최고기온은 37.3도를 기록했다.

다음 달 1~2일 최고기온은 각각 28~33도, 29~34도로 전망됐다.

1일 일부 지역에는 5~20mm의 비소식도 있다. 비가 내릴 땐 일시적으로 기온이 하락하겠으나, 그친 후에는 습도의 영향으로 무더울 거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영유아와 노약자 만성 질환자는 야외 활동과 외출을 특히 자제해야 한다"며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니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정 기자

광주교육청, 홍복학원 정상화 속도 냈다

광주시교육청이 학교법인 홍복학원 정상화에 박차를 가한다.

2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본청 상황실에서 '2025년 상반기 학교법인 홍복학원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열고, 법인 정상화 추진 경과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교육청 국·교장 등 내부 위원 5명과 시민단체 관계자, 변호사, 교수, 홍복학원 임시이사 등 외부위원 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복학원 정상화 추진 상황, 소송진행 현황 등 총 5 건의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통학로 문제 해결, 서진여고 학교 체제 개편의 필요성 등 여러 현

안 때문에 조속한 홍복학원 정상화가 필요함에 의견을 같아했다. 또 시교육청과 이사회를 중심으로 통학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법인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홍복학원 정상화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교육청은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법인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다이 기자

광주 우치동물원, 호남권 거점동물원 지정

청주동물원 이어 두 번째…국비 지원

광주 북구에 위치한 우치동물원이 호남권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된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중부권 청주동물원을 지정한 데 이어, 제2호 거점동물원으로 호남권 광주 우치동물원을 지정한다.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국가가 지정하는 동물원이다.

각 권역 내 ▲동물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동물 질병 및 안전관리 지원 ▲종 보전·

증식 과정 운영 ▲보유동물 서식 환경 개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받으면 국가로부터 필요 예산이 지원된다.

우치동물원은 이달 환경부가 애생동물 전문가와 함께 진행한 현장 조사 결과, 동물원수족관법에서 명시한 거점동물원의 시설 및 인력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여우원숭이의 팔 분쇄골절 수술에 성공할 정도로 우수한 수술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환경부는 그간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애생동물 관리 경험 등 여러 가지 성과를 고려해 우치

동물원이 호남권 거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거점동물원의 전시 동물 복지 강화 노력과 동물원 업계와 공유하고 동물원 업계가 스스로 관리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수도권, 영남권에도 거점동물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동물원은 단순 전시 공간이 아니라 애생동물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의 공간"이라며 "우치동물원의 모범 사례가 다른 동물원 업계 전제에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성주 광주청장 국수본부장 내정



보성 출신인 박성주 청장은 경찰대학교 행정학과를 거쳐 경찰청 수사국 범죄분석담당관, 서울시 강서경찰서장, 울산지방경찰청장, 경찰청 미래 치안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박 청장은 정식 임명과 함께 치안정책으로 승진한다.

한편 치안정책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 뿐이다.

/인재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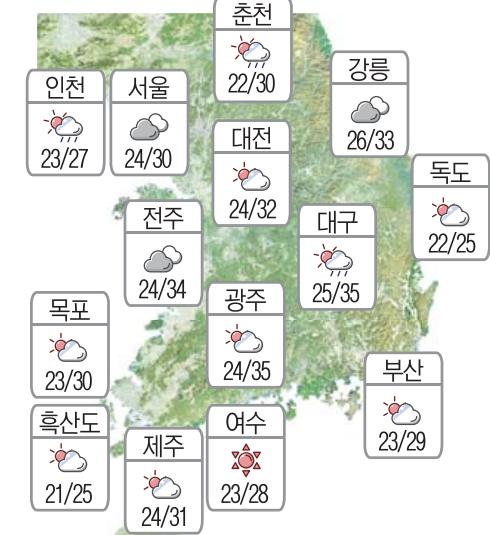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뜨 05:21 해짐 19:51 달뜰 10:09 달짐 23:18

●광주·전남 날씨

광주 구름조금	24/35	장성	구름조금	23/32
목포 구름조금	23/30	보성	맑음	22/30
여수 맑음	23/28	함평	구름조금	23/32
나주 구름조금	23/32	순천	구름조금	23/32
완도 맑음	23/30	영광	구름조금	23/31
구례 구름조금	23/35	진도	구름조금	23/30
강진 구름조금	23/32	흑산도	구름조금	21/25
해남 구름조금	23/31	고흥	맑음	22/31
광양 구름조금	23/32	담양	구름조금	23/35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앞바다	0.5~0.5	0.5~0.5
서해 면바다(북)	0.5~1.5	0.5~1.5
면바다(남)	0.5~1.5	0.5~1.5
앞바다	0.5~0.5	0.5~0.5
면바다(동)	0.5~1.0	0.5~1.0
면바다(서)	0.5~1.0	0.5~1.0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05:46	10:55	00:17	06:20	00:58	07:44
여수	17:44	22:55	12:26	18:23	13:06	19:30

●생활정보지수



●주간 날씨

7월1일(화)	2일(수)	3일(목)
구름조금	구름조금	구름조금
4일(금)	5일(토)	6일(일)
구름조금	구름조금	구름조금

▶ 날씨안내 : 국변없이 131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로에 베라겔 증액으로
400%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입니다.